

광양시, 공공기관 갑질 근절 적극 나선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키로 위반 땀 형사 처분·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 적용

광양시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갑질행위의 피해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갑질 대상을 ▲공무원-민원인 ▲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시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급기관직원 등 5개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피갑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행동강령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갑질 근절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분과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

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정된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민관 협력 사전 모니터링, 갑질 피해자(신고자)대상 만족도 조사 등 부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질 피해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란을 통해 가능하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불법 운영 파문 광양제철 수재 슬래그 처리수 분석 시안·카드뮴 등 8개 항목 기준치 이하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키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불법 운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지난 달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직접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8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채수한 시료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가 분석 의뢰한 항목은 시안, 카드뮴 등 총 8개 항목으로 광양제철소 제1고로 생산설비는 구리는 0.006mg/l 로써 기준치인 3mg/l의 500배 이하이고, 나머지 항목은 불검출로 나타났다. 2고로 생산설비는 시안이 0.03mg/l 로써 기준치인 1mg/l의 33배 이하이며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수재 슬래그 유출수가 폐수인지 침출수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최종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점에 대한 시정 환경과 직원이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서경철 광양시 환경과장은 "그동안 환경 사범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왔으며,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관련

수재 슬래그(quenched blast furnace slag)=철용광로에서 철을 녹일 때 상부에 철 이외의 불순물이 모이는 것. 노에서 막 나온 슬래그에 물을 가해 급랭하면 알갱이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수재라 한다. 이 것은 고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된다.

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광양만북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분석결과가 의혹을 풀기에는 부족하다며 광양시장과 관계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광양만북색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의 문제를 바꾸기식, 침출수 유출의 문제 요지를 흐트리는 자세를 고집한다면 광양시장은 물론 관계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정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없이 연간 627만톤의 수재 슬래그를 불법 생산·판매해 온 광양제철소는 생산중단을 촉구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중기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기술 고도화·매출·고용 창출 등 기여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 박차

광양시가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R&BD) 지원사업'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판로개척, 매출 및 고용창출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R&BD) 기업지원 사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광양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시제품 제작지원, 공정개선 지원 등 7개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연간 3억원의 사업비(전액 시비)를 투입해 지역 내 소재한 기업을 창업단계, 성장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기업군으로 분류해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참여희망 업체 57개사 중 27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결과, 2017년 대비 매출과 고용이 7%씩 성장해 각각 82억원과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모습. (광양시 제공)

3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기업 A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 공모에 '보일러 불순물제거 국산화 제품개발 R&D 발굴' 사업이 선정되어 1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냈으며, 골재 연마제 생산업체 B사는 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대기업에 월 200t 납품계

약 체결했다. 또 코팅 종이 제작 납품업체 C사는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1억7000만원 상당 2300박스를 판매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시는 올해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월 중에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사

업설명회 개최 등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 기술사업화지원센터(061-720-9312) 또는 광양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전화(061-797-3122)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500억 투입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광양시, 시민협의체 구성·운영키로

100명 내외 22일까지 접수 광양시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칭) 조성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반과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가칭' 가족형 어

린이 테마파크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지역에 맞는 컨셉과 테마를 논의해 왔다. 광양시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협의체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심포지엄, 공청회, 간담회, 명칭공모, 기타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등 사업 완료까지 수시로 운영된다. 또한 심부위원을 구성해 기획, 설계, 운영, 민간유치, 재원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협의체는 아동 및 청소년, 관광, 놀이문화, 환경, 안전 등 관련업체 관계자와 테마파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22일까지이며 희망하는 관련업체 관계자와 시민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과 테마파크팀(061-797-2950)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황길동 중앙근린공원 일대 60만8000여㎡에 2025년까지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2017년 5월 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지난해 2월부터 토지 감정 평가와 보상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15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00억원을 민간투자자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경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전달 회의



광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2019년 전남경찰 주요업무계획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광양경찰서 제공)

광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장과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광양경찰 지휘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남경찰 주요업무계획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가능별 중점 추진 업무를 보고·검토하고 향후 신뢰받는 광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논의하는 시

간으로 진행됐다.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은 "전남경찰 기능별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제복인인 시민 상(像) 정착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 해당 기능에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